

해외서 온라인 강의 받아도 캐나다대학 졸업 후 취업 보장

9월 15일까지 9월 학기 등록 학생 대상 서류 제출 심사도 2단계로 나누어 진행

9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연방정부가 유학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새 정책을 내놓았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마르코 E. L. 멘디치노 장관은 해외에서 캐나다 교육기관이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도 코로나19 이후 캐나다에서 졸업후 취업허가가 가능하도록 일부 정책을 변경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멘디치노 장관은 국제유학생이 캐나다의 사회문화 지대한 공헌을 하고, 연간 경제적으로 21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9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19로 캐나다의 외국인 입국도 불허되고, 국제유학생의 출신 국가도 여행을 제한하면서 캐나다 교육기관에 등록이 힘들어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미국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

를 수 없다며 출국을 명령하는 등 국제 유학생들을 박대하고 나섰다.

캐나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외에서 입국을 하지 못한 국제유학생이 이번 가을 학기에 해외에서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 졸업후 취업 프로그램(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한 셈이다.

멘디치노 장관은 “현재는 캐나다와 유학생의 주재국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향후 코로나19 완화조치로 입국이 허용될 때 취업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수정을 통해, 캐나다의 국제유학생들이 선택할 최고의 해외 유학 목적 국가로의 명성을 이어가고 동시에 국제유학생이 캐나다에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기여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멘디치노 장관은 강조했다.

이번 새 조치에는 온라인으로 유학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한 신청자들을 위해 가능한 빨리 서류 처리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받은 수업 시간을 모두 인정해 졸업후 취업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시간에 포함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국제유학생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 임시적으로 2단계로 유학 허용 절차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번 임시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15일 이전까지 캐나다 교육기관의 유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에만 캐나다는 포스트세컨더리 유학생을 65만 명이나 받아들였다. 또 5만 8000명 이상의 국제유학생이 나중에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한편 현재 캐나다가 외국인의 불필요한 입국 거부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고등교육기관 중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을 할 수 없다.

캐나다에 입학허가서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한다는 확인 서류를 받아 입국을 해야 한다.

캐나다도 화웨이 5G 장비 배제할까 英 결정에 압박 커져



영국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장비의 퇴출을 결정하면서 캐나다도 같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전 중국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 영사이자 캐나다 싱크탱크 맥도날드-로리에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찰스 버튼은 SCMP 인터뷰에서 “이제 캐나다 정부가 5G 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게 됐다”며 “캐나다 정부도 조만간 반(反)화웨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이러한 전망을 하는 주된 이유는 캐나다가 미국과 기밀을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파이브 아이즈’에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5개국이 가입했는데,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5G 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미국은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와는 기밀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화웨이 장비 배제에서 캐나다의 동참을 요구하는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12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명완저우(孟晚舟)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캐나다 내 반중 여론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캐나다 정부에는 부담이다.

당시 중국은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등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했고, 이후 중국은 캐나다산 상품 수입을 일부 중단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한 여론조사 업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5G 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SCMP는 “캐나다 내에서는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캐나다 정부를 ‘만만하게’ 본 중국이 캐나다인 석방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이러한 여론 등으로 인해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받아들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알버타 남부 그린하우스

캐나다 전역 Wendy 식당에 상추 공급

알버타 남부의 그린하우스가 이제 전국의 384 개 Wendy 지점의 샐러드, 샌드위치 및 버거의 상추 소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레스 브릿지 동쪽 콜 데일에 있는 홀 리프는 11 에이커의 온실 시설에서 매년 수백만 포기의 상추를 생산한다. 온실의 신선한 농산물 인 Inspired Leaves, Inspired Greens 및 Inspired Go 제품은 식료품 점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Wendy 도's Whole Leaf를 상추의 유일한 소스로 선택했다.

“이것은 정말 독특한 거래입니다. 우리는 웬디스와 환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품질, 취향 및 소비자 경험에 대

한 진정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도록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지침과 코칭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배경은 우리의 성장 및 가공 팀에게 매우 귀중합니다.”고 홀 리프의 영업 담당 이사 인 Rindi Bristol이 화요일 말했다.

웬디스는 기존 미국산 대신 이번에 캐나다 및 온실 제품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불과 1 년 전에 Whole Leaf는 5 에이커에서 11 에이커로 시설을 확장했으며 Wendy 's와 협력하여 앨버타 남부 남부의 온실과 가공 시설이 있는 캘거리에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했다. 일 년 중 이 시기에 홀 리프는

하루에 약 6 만 포기의 상추를 수확하고 매년 1,600만 포기 이상의 상추를 수확한다.

“온실 상추의 고유 한 기능은 우리가 현지에서 생산한 캐나다 산이며 깨끗하고 맛이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년 365 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추를 웬디 또는 어느 지역의 식료품 점에서든 일년 내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브리스톨은 말했다.

알버타 남부의 그린하우스는 주정부의 농업진흥 정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캐나다 은행, 올해 GDP 7.8 % 하락 전망 금리는 0.25%로 동결



캐나다 은행은 COVID-19 전염병에 대한 “매우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대한

응답으로 주요 금리를 0.25%로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이 개선 될 때까지 계속 유

지할 계획이다. 캐나다은행의 보고서는 수요일 캐나다 GDP는 올 2분기 전년 대비 14.6%의 감소에 힘 입어 올해 7.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올해 0.6%, 2021년 1.2%, 2022년 1.7%로 올렸다.

인플레이션 목표는 2%이며, 은행은 정책 발표에서 해당 목표가 달성 될 때까지 현재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원어민 영어회화 레슨

ENGLISH CLASS
원어민 영어

esl2019canada@gmail.com
Tel : 403-891-3162 / 403-264-4426

LYM VIOLIN LESSON

대입실기 지도/ 영재 스키 교육
West Kesington Tel : 403-689-6485

북/ 장구/ 아쟁/ 징
한국 전통 예술 레슨

Korean Art Club Tel: 403-510-8077

PIANO LESSON

어린이 조기 교육 전문
Calgary NE

일러스트레이트 / 인디자이
개인 레슨

Ai Id

Tel : 587-664-1042

코딩 스쿨

CODING BUDDIES

Tel : 403-422-1622

골프 레슨
Beddington Golf
Tel : 403-686-2171

유튜브 제작 실기

셋업부터 올리기까지

You Tube

Tel: 403-926-3890

현 화실

Tel (403) 861-9290